

대불청 부산지구 불심 모으기 '으랏차차'

6월 전국불교청년대회 앞두고 조직 개편

부산의 청년 불교가 꿈틀거리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이하·대불청 부산지구)가 6월 10~11일 '청년,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여는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앞두고 부산 청년 불자들의 힘 모으기와 조직 재정비에 돌입했다. 대불청 창립 86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맞아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청년지회가 생겨났을 정도로 청년 불교운동의 싹이 새롭게 움트고 있다. 정답불교청년회(회장 신석우)가 청년지회의 창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담할 예정으로 이미 창립했고, 북구불교청년회(회장 주호조)가 1월초부터 창립 준비 기간을 거쳐 창립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반야원

임원단 27명으로 확대 새 지회 꾸준히 등극 17개 단체 '봉축위' 동참

청년회도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불교의 저변확대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청년회원을 공개모집 중이며 대불청 부산지구 산하 노래패를 결성, 각종 산사음악회에서 청년불자들의 싱그러운 목소리를 선사할 계획으로 함께 활동할 청년을 모집 중이다. 특히 대불청 부산지구는 내부적인 조직 재정비뿐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17개 단체 청년단체와 힘을 결집, 청년불자들이 다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대불청 부산지구회원들이 3월 1일 범어사를 참배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청년대회로 만들겠다는 큰 틀을 짜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17개 단체가 모두 참여한 청년대회 봉축위원회를 꾸린 이유다. 대불청과 온·오프라인의 청년모임이 힘을 합쳐 멋진 잔치를 열고 부산의 청년불심으로 전국 청년불자들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청년대회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양말판매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인 1만원 1만등 달기 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손정현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은 "청년대회가 부산불교 청년들의 꿈과 열정, 신심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청년 불심을 한데 모아 새로운 불교운동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51)467-524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노인문제 해결 노인들이 나선다

불국토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

세상에 생기기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것들이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도 그 중의 하나다. 학대받는 노인이 없었다면 존재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3월 16일, 양정초소년회관 4층 세미나실에는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직접 끄겠다고 나선 16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불국토가 운영하는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김영관)가 '노인이 직접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을 발족, 교육을 시작했다. 하루 전

리사업과 연계한 어르신지킴이단은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노인학대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거리 홍보에 나선다. 노인학대 관련 VTR 시청, 노인복지의 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관련법, 노인성질환 이해, 노인학대 자킴이단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교육수료증이 주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젊은 층의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해온 예방교육이나 거리 홍보를 어르신들과 함께 펼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지 않다. 우선 상담이나 교육에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에



불국토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 발대식 모습.

전문교육 받은 후 거리 홍보 등 본격 활동 젊은층보다 친밀감 형성, 상담 효과 커

인 15일에는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 발대식도 이미 가졌다. 이날 황인옥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 상담 요령, 예방 활동, 학대에 따른 대응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얼굴엔 밝은 빛이랑곤 찾아 볼 수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 웅크리고 있을 걸 보고도 예사로 지나쳤는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해 상담도 하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껴요."

이날 지킴이단 단원 중 최고령자인 김송환(79·교사 정년퇴임) 할아버지는 교육 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권기연(75) 할머니도 "내 문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의 노인일자

용두골 안녕 '용두불'이 지킨다

부산 미타선원, 지하 스님 초청 봉안법회 봉행



12대, 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지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천도노재, 용두불 봉안식, 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봉안된 '용두불'은 불상이 봉안된 위치가 지형 상 용두산 용의 머리부분이어서 용두불이라 이름 붙였으며 오랫동안 우범지역으로 방치되었던 용두골 인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미희 기자

토요 휴일일에 갈 곳이 없더라고요? 부산 흥법사로 오세요! 주5일제수업이 월 2회로 확대 시행되면서 갈 곳이 없어 고민에 빠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부산 흥법사가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 흥법사는 2, 4주 토요일마다 8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도량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사진). 흥법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은 모두 8가지. 영어연극, 요리교실, 선무도, 과학교실, 독서토론, 원예체험학습, 종이접기, 천연염

"재미 있으면 저절로 모여들죠"

부산 흥법사 토요일업 대비 8가지 프로그램 마련



색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서 자연과의 교감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련된 흥법사의 프로그램은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로 확대 실시된 3월 11일부터 호응이 대단했다. 참가자가 130명에 달했고, 당초 마련했던 7가지에 천연염색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해 진행했을 정도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어린이 포교의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주5일제수업에 대비 사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051)508-0345 천미희 기자

불교TV 미주 송출 기념 법회

으로 거듭나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상, 감로사 주지 혜중 스님이 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여여선원장 정여, 영주암 주지 법산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이영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천미희 기자

불광사 중창불사

**우리는 타오르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요, 이 땅이 원래로 불국토임을 선언하고 있는 여기 불광법회, 1974년에 창립된 불광법회는 신도교육, 문서포교, 복지활동 등 전법을 통해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반야바라밀 위덕을 불어넣어 온갖 불행과 고난, 장애와 병고,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광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법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찾아오는 재가 구도자들의 운집으로 법회장소가 비좁게 되었고, 각종 계층법회와 소모임 교육과 수행프로그램운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중창불사를 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대 불광사 중창불사가 모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 가 모니불

- 불광 사부대중 일동

불광사 불광법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 전화 413-6060-2 ● 팩스: 413-6781 ● http://www.bulgwangsa.org